

**믿음생활은 부활중심적, 종말론적 삶이다**

물론 이들은 이 목록과 점검표는 조상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, 당신의 문제의 조건을 발견하고 치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. 설혹 그

렇다하더라도, 이것은 지나치게 구

약적이며, 율법적이며, 인과응보

적이며, 과거가 현재를 규정한

다는 과거지향적 사고방식

이요 접근방식이다.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

상이요,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'로서, 믿음이

란 '미래의 현재화'와 '하나님나라의 현실

화'이다. 즉 성도의 믿음생활은 어디까지

지나 과거보다는 미래의 바라는 것들

이 현재에 이르도록 하는 데 그 요체

가 있는 것이다.

소경의 종말론적 미래는 눈뜨는

것이며, 앓은뱅이의 종말론적 미래는

일어서는 것이요, 귀신들린 자의 종말론

적 미래는 귀신에서 풀려 주의 백성이 되는 것

이고, 병자의 종말론적 미래는 건강하게 되는

것이고, 죽은 자의 종말론적 미래는 부활하는

것이다.

신약에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이 종말론적

인 미래의 하나님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이 현재

속으로 침투한 것이었으며, 믿음으로 하나님나

라의 종말론적인 실재를 누리게 하는 증거였던

것이다. 즉,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, 보

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이다.

성도의 믿음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미래지향

적인 것이요, 종말론적인 것이요, 부활중심성

의 신앙이다.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자의 현

실을 '조상의 죄'로부터 그 원인을 찾으려는 영

적 뿌리 찾기의 시도는 지나치게 과거중심적이

요 인과율(과거의 원인이 현재라는 결과를 만

들었다 라는 사고방식)적인 것으로 바리새파적 인 해석체계인 것이다.

지난 4대조 30명의 조상들의 생애의 사적을 날날이 찾아 그 뿌리를 찾자는 소위 '영적 뿌리 찾기'는 지나치게 소모적인 것이며,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불필요한 이전 것을 향한 노력인 것이다.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갔으며, 그 어떤 과거의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무효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.



**'조상의 죄'로부터 그 원인을 찾는**

영적 뿌리 찾기의 시도는, 과거중심적이고

인과율적인 해석체계이다.

'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'  
(고후 5:17).

'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'(빌 3:14-15).

'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'

(딤후 1:4).

'어리석은 족보 이야기에 대한 다름을 피하라'  
(딤후 3:9).

끝으로, 필자는 이 글이 가게 치유자들에게 냉혹한 비판이 되기보다는 보완적인 충고와 심사숙고의 계기요, 좀더 성숙한 열매를 맺기를 바람에서 쓰여졌음을 다시금 밝혀 둔다. ☺